

함께해요 헌혈 동참 캠페인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
헌혈 부족 사태 극복 캠페인





현재 대한민국은 **헌혈수급 비상사태**



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이
계속해서 **부족한 상황**입니다.

우리나라의 헌혈 참여율

2022.02.14기준

헌혈 인구	2020년	2021년	현재
	2,435,210 명	2,426,779 명	254,068 명

우리나라의 헌혈 보유량

적혈구제제 보유 현황

2022.02.14기준 / 단위 : Unit

구분	합계	O형	A형	B형	AB형
1일 소요량	5,029	1,424	1,716	1,326	563
혈액보유량	18,130	4,302	6,214	5,600	2,014
보유상태	 3.6일분	 3.0일분	 3.6일분	 4.2일분	 3.6일분

*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입니다.

이대로 가다간 혈액 보유량
'주의 단계' 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.



적정

관심

주의

경계

심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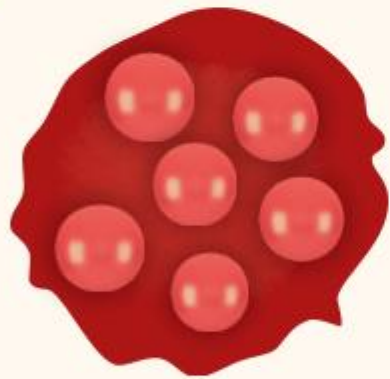
※ 적정단계 (5일 이상), 관심단계(3~5일), 주의단계(2~3일),
경계단계(1~2일), 심각단계(1일분 미만)

혈액 보유량이 주의단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
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

혈액 보유량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혈이 필요한
환자분들의 목숨이 크나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

헌혈 했는데..
왜 매번 **부족**하다고 하는 걸까?

**이유는 바로
보관 가능 일수 때문입니다.**



적혈구 **35일**



혈소판 **5일**

혈액 속 적혈구는 35일, 혈소판은 5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.
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혈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
지속적인 헌혈이 꼭 필요합니다.



헌혈을 자주 하면 건강에 안 좋았던데..?

아닙니다!

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자의 경우 체중의 8%,
여자는 7% 정도로 체중이 60kg인 남성은 약 4,800ml의 혈액을,
50kg인 여성은 약 3,500ml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

전체 혈액량의 15%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,
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.

신체 변화에 대한 조절능력이 뛰어난 우리 몸은 헌혈 후
1~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
혈관 내외의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.



헌혈하다 혹시 **코로나19** 걸리면..?

걱정 마세요!

한 번 쓰인 주사바늘은 절대 재사용 하지 않으며
주기적인 소독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또한 코로나19는 혈액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.



집근처 헌혈 가능한 곳은?



헌혈을 하고 싶어도 해당 기관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,

대한적십자사(www.bloodinfo.net/), **한마음혈액원**(www.bloodnet.or.kr/) 홈페이지에 들어가

헌혈참여 메뉴의 헌혈의집/헌혈카페 찾기, 헌혈버스 찾기를 눌러보세요!

* 단체헌혈은?

- (적십자사) 수급관리팀 033-811-0050~5
- (한마음혈액원) 혈액기획팀 02-6918-2044

헌혈은 생명을 살리는
소중한 자원봉사활동입니다